

대한항공

2023년 3분기 실적

인천-가고시마 주 3회 운항 (10/29부)

KOREAN AIR 

본 자료에 포함된 경영실적 및 재무정보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.

자료의 재무 정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,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, 본 자료에 기술된 재무정보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대한항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. 동 정보는 주식 거래 및 투자 의사 결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합니다.

예측정보는 그 성격상 불확실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, 회사의 향후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포함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요약손익계산서 (별도 기준)

- **영업수익** : 3분기 **3조 8,638억원**
- **영업이익** : 3분기 **5,203억원 (영업이익률 13.5%)**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'22. 3Q | '23. 3Q | 증 감 | | 비 고 | '23. 3Q 누적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영업수익 | 36,684 | 38,638 | +1,954 | +5.3% | | 105,950 |
| 여객 노선 수익 | 14,543 | 25,584 | +11,041 | +75.9% | 국제선 2조 4,356억원, 국내선1,228억원 | 65,570 |
| 화물 노선 수익 | 18,564 | 9,153 | -9,411 | -50.7% | | 29,276 |
| 기타 수익 | 3,577 | 3,901 | +324 | +9.1% | 항공우주 1,388억원 (+169억원, +14%) | 11,104 |
| 영업비용 | 28,292 | 33,435 | +5,143 | +18.2% | | 91,917 |
| 연료비 | 11,707 | 11,696 | -11 | -0.1% | 소모량 +33%, 단가 -24%, 환율 -2% | 31,549 |
| 연료비 외 | 16,585 | 21,739 | +5,154 | +31.1% | 인건비, 감가상각비, 공항/화객비 등 | 60,368 |
| 영업이익 (영업이익률) | 8,392 (22.9%) | 5,203 (13.5%) | -3,189 | -38.0% | 이자보상배율 4.4 (순이자보상배율 14.5) | 14,033 (13.2%) |
| 영업외손익 | -2,137 | 529 | +2,666 | | | 1,100 |
| 순이자손익 | -586 | -358 | +228 | | 이자수익 815억원, 이자비용 1,173억원 | -1,112 |
| 외화환산차손익 | -3,998 | -361 | +3,637 | | 순외화부채 27억불 | -1,009 |
| 법인세차감전순이익 | 6,225 | 5,732 | -523 | -8.4% | | 15,133 |
| 당기순이익 | 4,314 | 4,245 | -69 | -1.6% | | 11,514 |

※ 평가환율(USD/원) : '23년 2분기말 1,312.8 → '23년 3분기말 1,344.8 (+32.0원, +2.4%)

요약재무상태표 (별도 기준)

- 당기순이익 지속 발생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(분기말 부채비율 188%)
- 현금성 자산 증가로 순 금융부채 지속 감소 (분기말 순 금융부채 4.7조원)

(단위 :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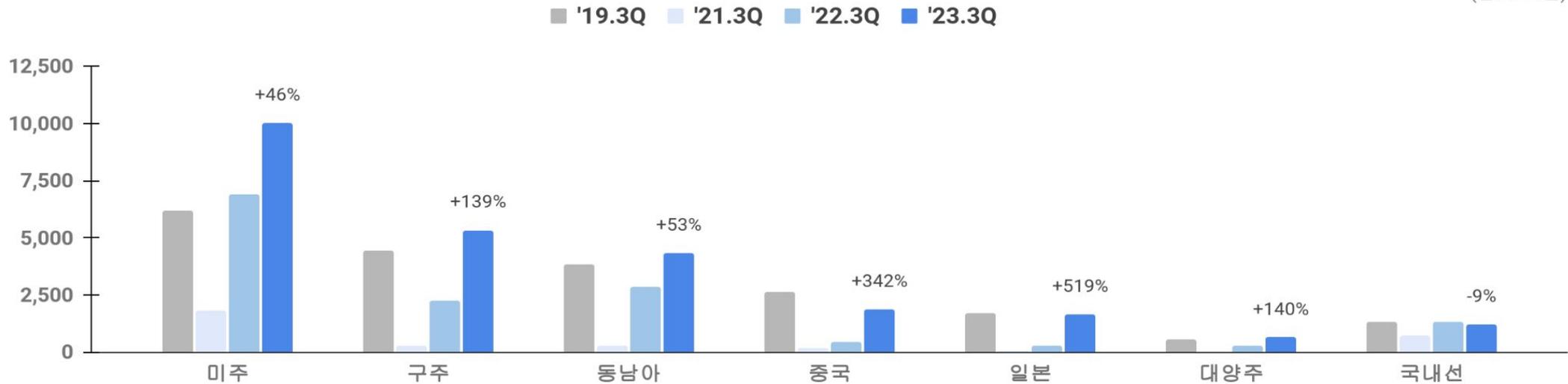
| 구 분 | '22년 말 | '23년 3분기말 | 증 감 |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자산 총계 | 280,657 | 290,490 | +9,833 | +3.5% | |
| 유동 자산 | 76,109 | 81,470 | +5,361 | +7.0% | |
| 현금성 자산 | 53,581 | 55,853 | +2,272 | +4.2% | 단기금융상품 포함 |
| 비유동 자산 | 204,548 | 209,020 | +4,472 | +2.2% | |
| 항공기 관련 자산 | 124,624 | 125,863 | +1,239 | +1.0% | |
| 부채 총계 | 188,401 | 189,473 | +1,072 | +0.6% | |
| 금융 부채 | 105,511 | 103,096 | -2,415 | -2.3% | |
| 기타 부채 (영업 부채) | 82,890 | 86,377 | +3,487 | +4.2% | |
| 선수금 | 39,329 | 47,520 | +8,191 | +20.8% | |
| 자본 총계 | 92,256 | 101,017 | +8,761 | +9.5% | |
| 부채비율 | 204% | 188% | | | |
| 유동비율 | 92% | 93% | | | 유동자산 / 유동부채 |
| 순 금융부채 | 51,930 | 47,243 | -4,687 | -9.0% | 금융부채 - 현금성자산 |

여객사업

- 엔데믹 전환 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 성수기 및 추석 연휴 효과에 힘입어 실적 호조
- 전분기 대비 여객 사업 전반 지표 개선 (노선 수익 +15%, 공급 +8%, 수송 +10%, Yield +5%, L/F +1%p)

■ 노선별 여객 매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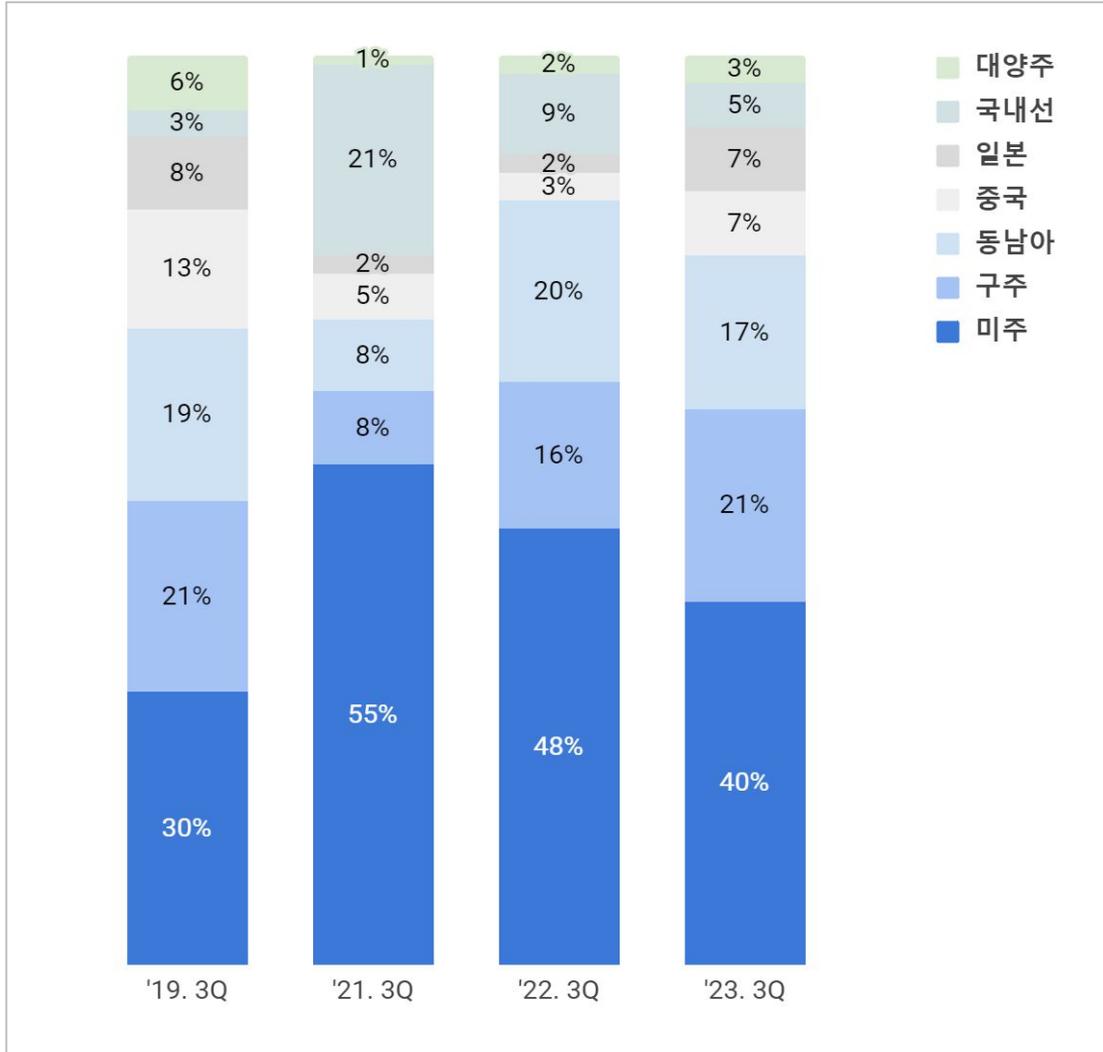
(단위: 억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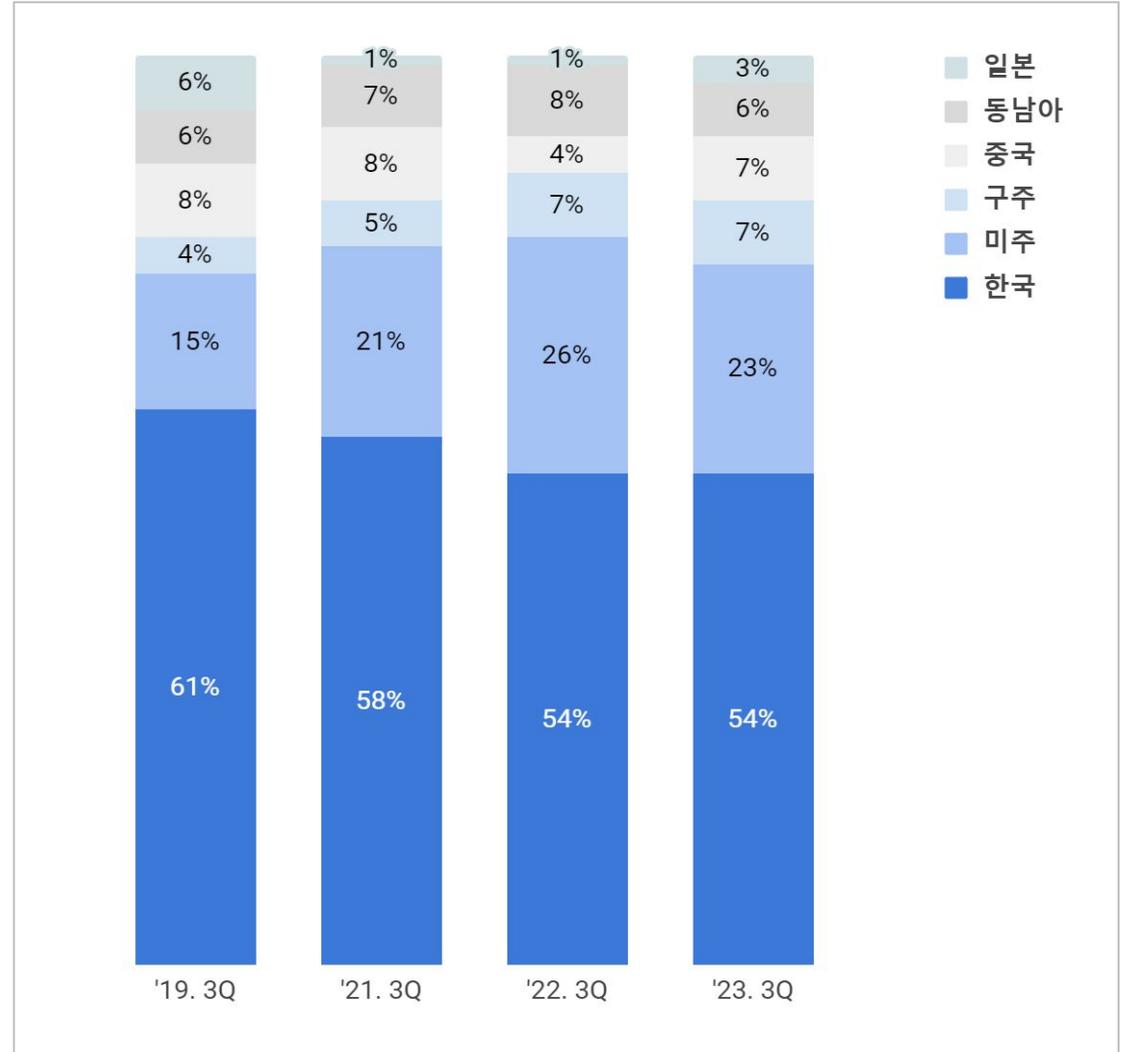
| 구 분 | '19. 3Q | '21. 3Q | '22. 3Q | '23. 3Q | 전년 대비 | '19년 대비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공 급 (백만km) | 26,162 | 6,051 | 12,886 | 21,764 | +68.9% | -16.8% |
| 수 송 (백만km) | 21,714 | 2,572 | 10,319 | 18,551 | +79.8% | -14.6% |
| L/F | 83.0% | 42.5% | 80.1% | 85.2% | +5.2%p | +2.2%p |

여객사업 매출상세

■ 노선별 매출 비중



■ 판매지역별 매출 비중



■ 항공 여행수요 강세에 따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공급 확대

- 한국 출발 및 방한 수요 지속 증가로 '19년 공급(ASK 기준) 대비 90% 회복 추진

■ 미주 노선 수요 견조 및 중국 노선 수요 점진적 회복으로 실적 지속 개선 전망

- 미주 : 미주발 한국행 및 중국/동남아 환승 수요 기반으로 실적 호조 예상
- 구주 : 구주발 한국행 및 이원수요 강세 지속으로 팬데믹 이전 실적 상회 기대
- 동남아 : 동남아-미주간 환승 수요 견조 및 한국발 동계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호조 예상
- 중국 : 중국-미주간 환승 수요 유입 및 한국행 단체여행 허용으로 중국발 수요 점진 회복 전망
- 일본 : 한-일간 방문 수요 지속 증가에 따라 주요노선 공급 증대 및 소도시 운항 재개

■ 신규 수요 개발 및 부정기 운영으로 수익 극대화

- 베트남 푸꾸옥 신규 취항 (11.26부), 중국/일본노선 지선 복항, 동남아 부정기편 운영으로 수익 제고

신규 여객 서비스

여객 기프트카드 서비스 출시 (10/11부)

-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 출시로 고객 편의 증대



- 한국지역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
- B2B(상용) 고객/직원 대상 프로모션 상품권 수요 흡수 등 신규 및 잠재 수요 유치
- 항공권 신규 결제수단 제공하여 고객 편의 증대 및 자사 채널 활성화

인천-푸꾸옥 신규 취항 (11/26부, 주7회)

- 신 목적지 개발을 통한 신수요 저변 확대



- 베트남 남부 최서단에 위치,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관광지에 신규 운항 개시
- 차별화된 스케줄로 신규 수요 창출 (오후 3시 45분 인천 출발, 오후 7시 50분 푸꾸옥 도착)
- 당사 동남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노선 경쟁력 강화

최신 여객기 도입으로 기단 현대화

- 고객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운항 효율성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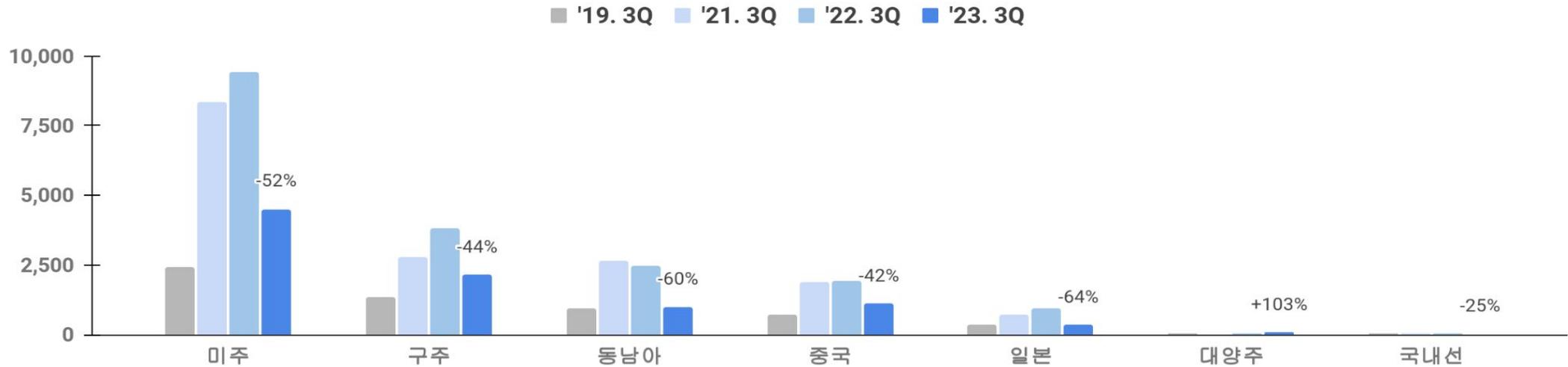
- A321 Neo 신규 주문(20대): 180도로 펼쳐지는 프레스티지 좌석 (8석) 및 기내 와이파이 제공하여 중단거리(동남아, 중국, 일본 등) 서비스 경쟁력 강화
- 고효율 & 친환경 항공기로 기존 동급 모델 대비 좌석당 연료소모량 및 탄소배출량 20% 절감

화물사업

- 하계 휴가 시즌 영향으로 화물수요 감소하였으나, 중국노선 회복 및 여객 성수기로 화물공급은 증가
- '22년 동 기간 대비 글로벌 항공화물 공급 +10%, 수요 -6%, 시장운임 -40% (IATA 보고서)
- 비수기 경쟁 심화로 시장 운임 하락하였으나, 당사는 최적의 공급 및 가격 관리로 수익성 유지 노력

■ 노선별 화물 매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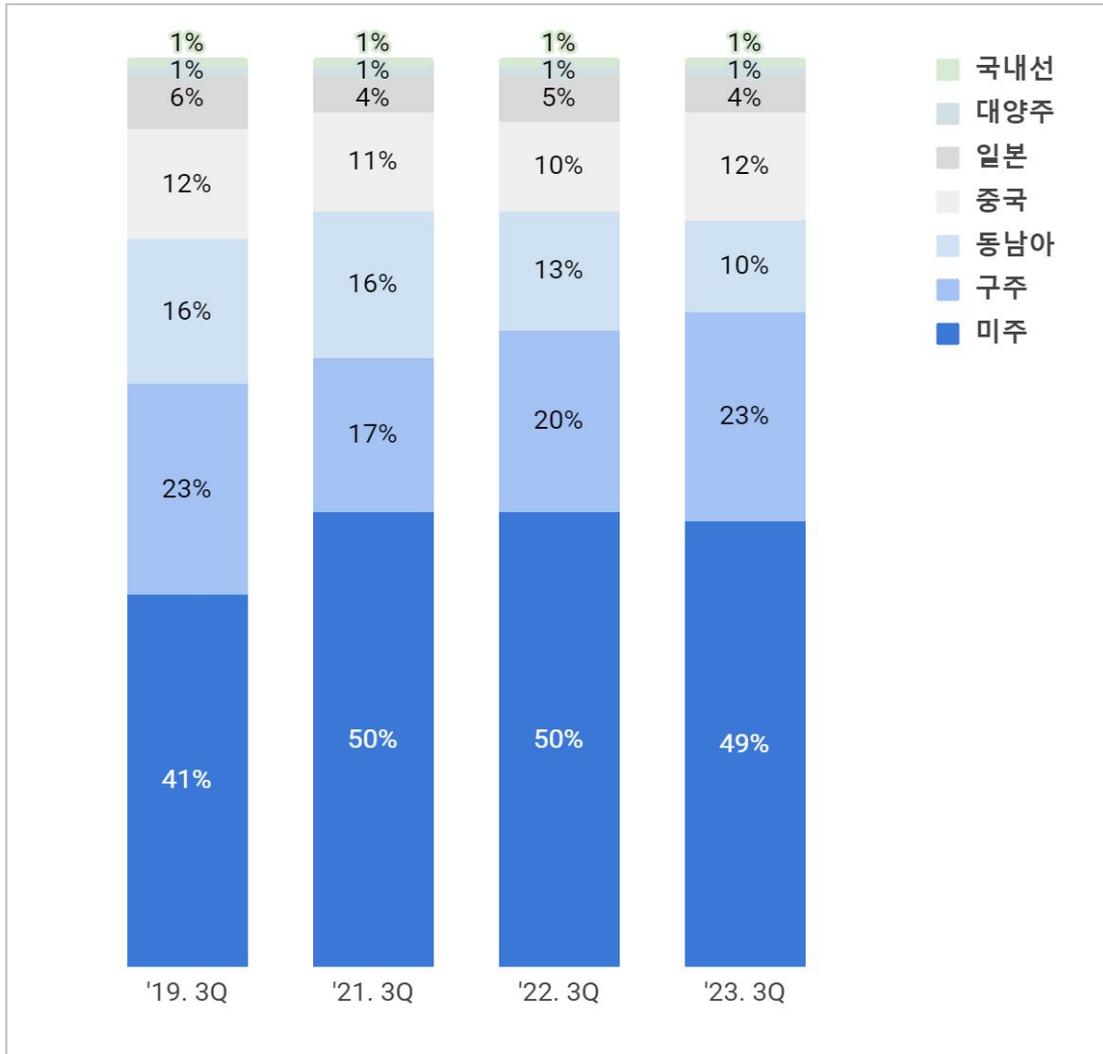
(단위: 억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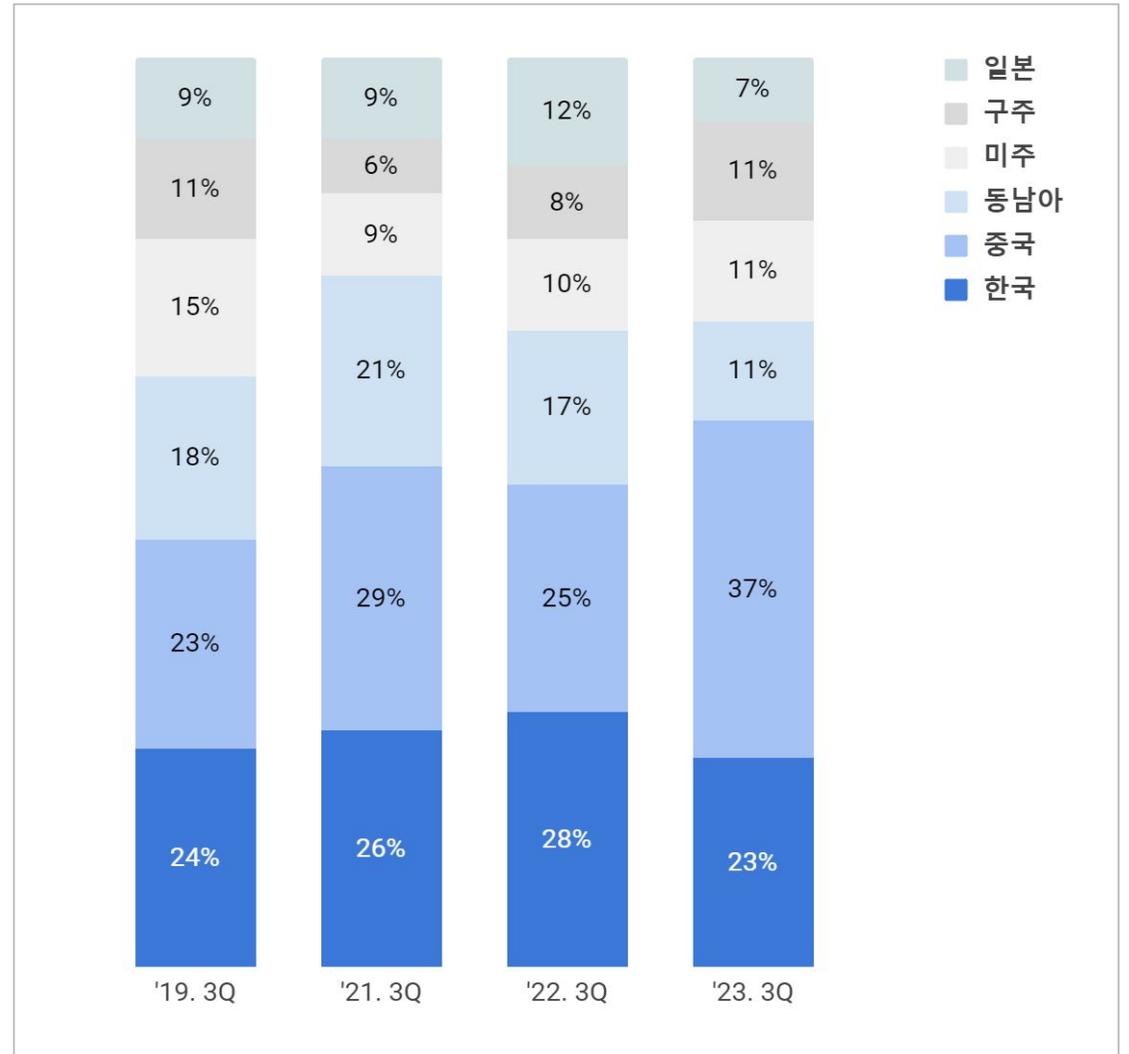
| 구 분 | '19. 3Q | '21. 3Q | '22. 3Q | '23. 3Q | 전년 대비 | '19년 대비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공 급 (백만톤km) | 2,598 | 3,244 | 2,920 | 3,022 | +3.5% | +16.3% |
| 수 송 (백만톤km) | 1,845 | 2,738 | 2,300 | 2,139 | -7.0% | +15.9% |
| L/F | 71.0% | 84.4% | 78.8% | 70.8% | -8.0%p | -0.2%p |

화물사업 매출상세

■ 노선별 매출 비중



■ 판매지역별 매출 비중



■ 4분기 경기 변동성 확대로 수요 불확실성 여전하나, 연말 특수 수요의 완만한 증가 기대

- 러-우 전쟁, 이스라엘 분쟁 발발 및 중국 부동산 침체로 경기 회복 둔화
- 반면 중국발 전자상거래 및 연말 소비 특수에 따른 항공화물 수요 증가 기대

■ 전자상거래 물량 및 시즌성 프로젝트를 집중 유치하여 수익 극대화

-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 노선(미주, 유럽)에 공급 추가 및 화주와 계약규모 확대 노력
- 프랑스산 와인, 남미산 체리, 생동물/특수물자 전세기 등 프로젝트를 수요 유치하여 수익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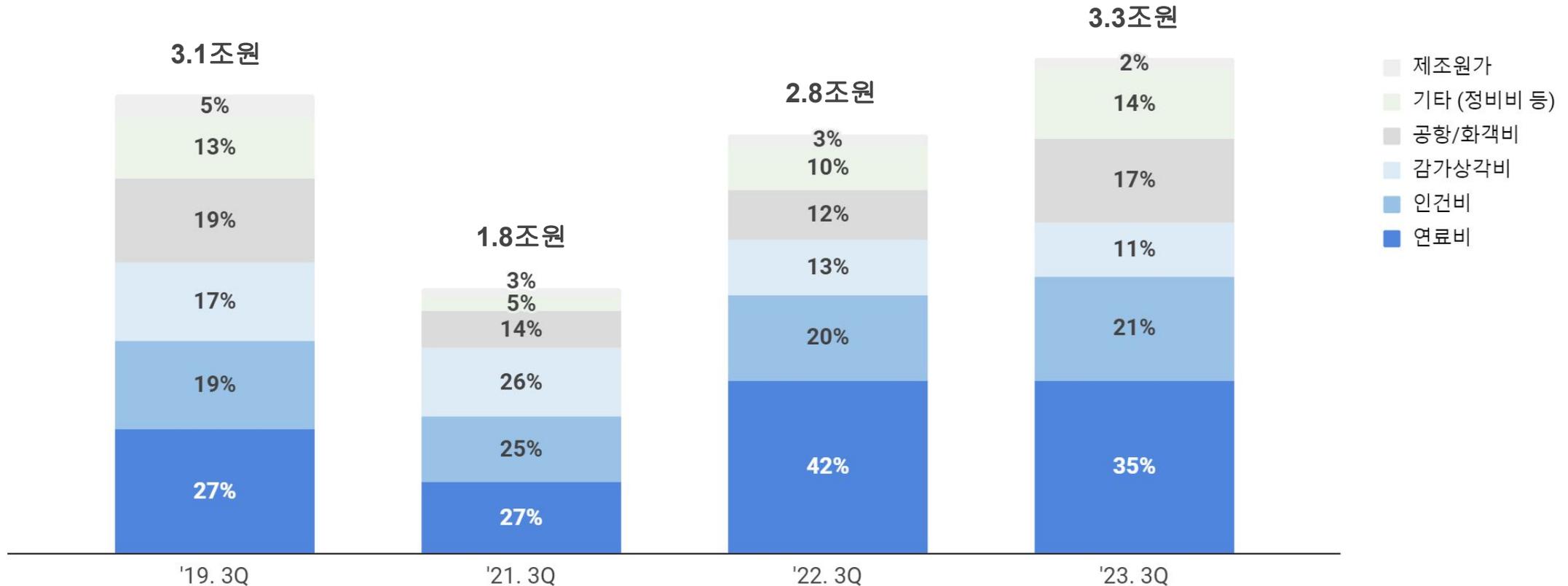
■ 수요 변동에 따른 탄력적 공급 운영 및 운항 경제성 개선으로 고비용 환경에 대응

- 수요 분석 강화하여 여객기 belly 연계 등 공급 조정으로 편별 수지 관리 강화
- 공항별 유류비 모니터링으로 급유지 최적화, 연료 효율성 최적 노선 운항 구조 운영으로 고유가 환경에 대응

영업비용

■ 영업비용 3.3조원 (전년비 +5,144억원)

- 공항/화객비 : +2,279억원 yoy (여객 사업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)
- 인 건 비 : +1,294억원 yoy (휴업인원 감소, 사업량 증가, 임금 인상 등)



항공기 보유 현황

(단위 : 대)

| 구 분 | 기 종 | 2022.12.31 | 2023.9.30 | 증 감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중대형기 | A380 | 10 | 10 | |
| | A330 | 30 | 29 | -1 |
| | B747-8I | 9 | 9 | |
| | B777 | 39 | 37 | -2 |
| | B787-9 | 10 | 10 | |
| 소형기 | B737-800/900 | 18 | 17 | -1 |
| | B737-8 | 5 | 5 | |
| | A321neo | 1 | 6 | +5 |
| | A220 (CS300) | 10 | 10 | |
| 여객기 계 | | 132 | 133 | +1 |
| 화물기 | B747F | 4 | 4 | |
| | B747-8F | 7 | 7 | |
| | B777F | 12 | 12 | |
| 화물기 계 | | 23 | 23 | |
| 총 계 | | 155 | 156 | +1 |

[참고] 대한항공 신용등급 상향 (BBB+ → A-)

- 2015년 12월 이후 8년만의 A등급 복귀
- 신용등급 향상으로 신규 투자수요 확보, 자금 조달 용이해지고 금융비용 절감 가능 예상

■ 신용 등급 상향 배경

한국기업평가

- 여객사업 회복을 통해 리오프닝 과도기에도 우수한 실적 지속
- 우호적 수급여건 하에서 양호한 영업실적 유지 전망
- OZ 인수 여부가 신용도에 미칠 영향 제한적

한국신용평가

- 주력 부문인 국제선 여객사업 정상화 흐름 공고
- 화물 시황 둔화 등에도 양호한 이익창출력 유지
- 실적 호조로 재무 여력이 확충되었고, OZ 인수 시에도 개선된 재무 안정성 유지 전망

NICE신용평가

- 화물 시황 둔화 등 비우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, 견조한 국제여객 수요 회복으로 우수한 이익창출력 지속
- 여객 실적 회복을 기반으로 양호한 이익창출력 유지 전망
- 유상증자,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재무안정성 크게 개선되어, OZ 인수 이후에도 재무부담 상승폭 제한 전망

[참고] 아시아나항공 합병 진행 사항

- EU, 미국, 일본 3개국 승인 필요
-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 유럽경쟁당국(EC)에 시정조치안 제출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 ('23. 11. 2)

| 날 짜 | 경 과 |
|--------------|--|
| 2020년 |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|
| 2021년 |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및 PMI(Post Merger Integration) 계획 확정 & 대한항공 유상 증자 완료(3.3조원) |
| 2022년 2월 |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|
| 2023년 3월 | UK 기업결합 승인 |
| 2023년 11월 | 유럽경쟁당국(EC)에 시정조치안 제출 |
| 현 재 | EU, 미국, 일본 3개국 승인 진행중 (한국, 터키, 태국, 대만, 베트남, 중국, 영국 승인 완료) |
| 기업결합신고 승인 후 | 아시아나항공 지분 63.9% 인수 및 자회사 편입 |
| 지분 인수 후 약 2년 |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|

감사합니다